

I

권두칼럼



- 발행인 권두사..... 06
 채수원 |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원장
 임태훈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기반기술연구본부 본부장

권두사

채수원 |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원장



지난 2월 “그린모니터” 창간호가 발간된 후 어느덧 6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제2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저희 주변의 에너지, 환경 그리고 기후변화 부문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국내에서는 때 이른 전력 비상이 시작되었고, 이와 결부해서 에너지서비스의 질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돌출되었습니다. 최적의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언제나 신뢰성과 경제성이라는 상반된 두 목표 간의 적절한 조율이 요구됩니다. 작금의 한수원 문제는 이러한 관계 조율 이전에 임무를 맡은 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전형적인 모델해저드 현상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경제적, 기술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저변의 의식개편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 모두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전력난 이슈로 인해 저희는 전력 수급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급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국가 창조경제 비전에 부응한, 솔루션들이 창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 등의 융복합적 시도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국외에서는 에너지안보, 환경친화 및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의존도를 높이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의 행보가 그렇고, 독일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이 에너지 목표로 100% 신재생에너지화를 가져가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로 인한 향후 국제 에너지 시장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한 연구 이슈입니다. 전통적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는 대체재 성격이 강하게 시장에서 나타나 왔습니다. 그렇지만 비전통 화석연료인 셰일가스의 경우, 과연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재 성격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보완재 성격을 가져갈 것인지도 매우 재미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린모니터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특화전문대학원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2회 발간됩니다. 동 사업에서는 클린파워제너레이션, 지속가능도시환경 및 카본사이클자원화라는 3가지 큰 주제에 대해 다양한 기술,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사업 취지를 감안하면 당연히 그린모니터에는 연구대상 기술 중심의 내용을 담아야 되겠지만, 저희 편집진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3가지 큰 축인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라는 거시적 범주에서 보다 폭넓은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지에 수록하고자 합니다.

지면을 빌어서 저희 그린스쿨대학원 발전과 동 전문지 발간에 큰 관심과 도움을 주신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창간호 발간 이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 사랑어린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그린모니터가 발전되도록 저희 그린스쿨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o Won Cha

권두사

임 태 훈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가기반기술연구본부 본부장



에너지, 환경 그리고 기후변화 분야는 전 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임과 동시에 국가의 성장을 가져다 줄 큰 동력원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큰 범주의 개념이 바로 그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은 생멸하는 어느 한 시대의 정책이 아니라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기술 측면에서도 그린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 간의 융·복합연구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국가 R&D기술 정책에 있어서도 그린기술은 대표적인 융합연구 사례 분야인 것 같습니다. 나노, 바이오 및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 기술은 보다 높은 수준의 그린기술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KIST-고려대 그린스쿨은 이러한 그린 목표를 가지고 KIST와 고려대가 협력해서 설립한 특화전문대학원입니다. 우리 그린스쿨은 정부의 특화전문대학원 연계 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환경 기술·정책 융합분야의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과 같이 그린스쿨은 그린분야에 있어서 기술과 정책의 융합교육을 하는 선구적 역할을 하며, 아울러 학교와 연구소간에 공동으로 효과적인 융합연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본 전문지 『그린모니터』 제2호가 이렇게 출간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창간호에 대해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본 사업의 책임자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모니터는 에너지,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의 연구 결과 및 동향을 전달하고자 그린스쿨에 소속된 KIST-고려대 교수진 및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값진 성과물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연구성과, 연구논단 및 정책·기술동향 순의 기존 섹션과 더불어, 지난 6월 대구에서 개최된 세계에너지경제학회(AEE)에서의 그린스쿨 발표내용을 특집섹션으로 수록했습니다. 지속가능성의 3가지 연계 축으로 에너지, 물 그리고 기후변화 주제를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다룬 재미있는 내용이오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과 정책을 융합한 우리 그린스쿨대학원이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대학원으로 도약 발전하도록, 그리고 그린모니터가 공히 국내외적으로 에너지환경 기술·정책분야에 지식을 공유하는 매체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 태 훈